

진현환 1차관, “겨울철 도로제설 총력 대응” 강조

- 22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찾아 제설대책 긴급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2일(월) 오후 2시 50분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, “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,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”면서,
 - “특히,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”을 지시했다.
-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·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, “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,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강조했다.
 - 또한, “도로, 교량,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,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
-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“겨울철 도로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”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('23.11.15~'24.3.15)을 정하고, 종합상황실 운영, 제설자재·장비 추가 확충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.

2024. 1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